

‘섬 관광 1번지’... 진도시대 열어간다

군, 전국 여행사와 관매도 직항 연계 관광상품 운영 내달 1일부터 日 3회 운항...‘섬·해양 관광지로 육성’

진도군이 ‘관매도 직항노선 개설’을 계기로 전국 단위 여행사와 협력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국내여행사연합회, 한국대표여행사연합회와 함께 ‘관매도 직항 연계 진도 관광상품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해 양 협회의 회장과 소속 여행사의 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해 관매도 직항노선의 활성화와 진도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매도는 ‘관매 8경’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 해역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지만, 여객선이 하루에 2회만 운항해 당일 관광은 쉽지 않았다. 진도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40여원을 투입해 신규 선박을 건조하고, 4월 1일부터 관매도 직항 여객선을 하루 3회 운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매도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당일 관광은 물론 1박 2일 이상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어 섬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도군과 양 협회는 관매도 직항 여객선과 연계한 관광상품 공동 기획과 운영, 당일과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전국 여행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와 판매, 모객 활동 등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매도의 자연경관 탐방, 해양과 섬 체험을 중심으로, 진도 본섬의 미식, 문화 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국내여행사연합회, 한국대표여행사연합회와 함께 ‘관매도 직항 연계 진도 관광상품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관매도 직항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섬 관광 활성화의 이끔 핵심 동력이다”며 “전국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매도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해양 관광지’로 육

성하겠다”고 말했다. 양 협회 관계자들도 “관매도의 자연환경과 체험 콘텐츠는 충분한 상품성을 갖고 있다”며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해 진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

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향후 진도군 홍보 여행(뽕투어)과 관광상품의 시범운영을 거쳐 직항 여객선의 취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진도군이 건조하는 184t급 여객선은 관매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영암 흑백요리사 음식 맛보고 농산물도 사주세요”

농부남생이사업단, 천상맛집서 주말 농산물 판매

영암 ‘흑백요리사’ 매장 옆에서 매주 토요일 지역 농산물 직거래 부스가 미식 관광객을 맞는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농부남생이사업단 유동사업단은 오는 7일부터 왕인박사유적지 안 미식 관광명소 ‘천상현의 천상맛집’ 옆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연다.

천상맛집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 셰프가 운영하는 중식집으로,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셰프가 온라인 영상 콘텐츠 서비스(OTT)의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면서 주말이면 긴 대기 줄이 있을 정도로 지역 안팎의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0월 ‘관광거점 특화음식점 육성사업’으로 천상맛집의 개점을 도운 영암군은 유명 미식관광 콘텐츠를 지역 소

농·고령농의 농산물 판로 확보에 활용해 공의 가치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지역 농가의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수집·제공해 첫상맛집 식도락, 왕인박사유적지 관람, 지역 농산물 경제적 구입으로 이어지는 미식관광의 삼박자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부남생이사업단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부스에는 지역 농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복 품목은 선착순 판매된다.

부스 참여 신청과 안내는 사업단(010-2580-8072, 061-473-2555)에서 한다.

사업단은 고령화와 소규모 생산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판로를 찾지 못했던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설립돼, 1만 762kg의 곡물을 수집·판매하며 약 1억 7000만원의 매출을 농가 소득으로 연결했다.



영암농부남생이사업단 판매장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계약재배 체계 확립, 24시간 농산물 대응 시스템 구축, 마을별 거점 홍보방 가동 등을 추진한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천상맛집의 옆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부스를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농과 고령농에게는 정당한 땅의 대가를 보장하는 상생의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해남정수장 정비 완료 “깨끗한 수돗물 공급”

재건설 등 설비 교체...4개 읍·면 91개 마을 수질 개선

해남군의 4개 읍·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해남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올 1월 준공돼 수돗물 공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삼산면 송정리에 위치한 해남정수장은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등 91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노후 정수장을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 사업비 235억원을 투입, 정수장을 재건설하고 설비를 교체하면서 일 4000t 규모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충됐고, 노후된 배수관로 약 1.2km를 전면 교체했다.

또 자동화 시스템과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하면서 정수장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됐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질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해남군은 향후 수도 사용량 증가와 시설 확장에 맞춰 상수도 시설물 정비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239@gwangnam.co.kr

완도, 초·중·고 입학생 축하금 지원

총액 10만원·중고생 20만원 완도사랑상품권 지급

완도군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 입학생으로,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을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신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축하금은 자격 등 확인 절차를 거쳐 4

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23년에 918명, 2024년에는 766명, 지난해에는 769명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며 신입생들의 출발을 응원해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입학 축하금이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펼치기 좋은 교육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제22회 영산강사랑사·도민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한마음 걸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문의 광남일보 사법국 T. 062)370-7090
※ 우선 시제로 진행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절차의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까지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사)광남문화재단, 건락포럼

후원(예정): 나주시, 나주시 임업후계자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남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전남도지법행정지원과